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6. 30.(화) 15:00

자원안보위기에 따라 시행되었던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해제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해제
- 석유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에너지 절약 조치는 지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수급 여건이 개선되어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는 해제되고,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 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 실내 온도 준수,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승용차요일제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시책 시행 중

또한, 석유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그간 자발적 차량 운행 감축을 위해 시행되었던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도 7월 1일 0시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등의 차량 운행에 제약이 없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통해 월 160,090배럴 절감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승용차 약 48만 대 주유가 가능한 양이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까지 81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승용차부제(2·5·10부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자원안보 위기가 완전히 종료되기까지 12대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기반의 에너지절약 캠페인과 같은 민간으로 에너지 절약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포함하여 에너지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내 공급망에 위협 신호가 감지되거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 예정이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장기화되며 불편함이 많았음에도 그간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하며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신 민간과 기업에도 감사드리며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완화되었으나,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닌 만큼 에너지 절약에 계속해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붙임. 12대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포스터.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책임자	과 장	김용운 (044-203-3984)
		담당자	사무관	한주영 (044-203-3981)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이동할 때



승용차 5부제(요일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운전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타기

회사에서



적정 실내온도 준수
(난방 20°C, 냉방 26°C)



불필요한 조명 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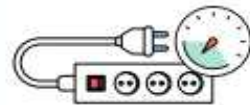


샤워시간 줄이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하기

가정에서



저녁시간(5~8시) 가전제품
효율적으로 이용·절약하기



전기차·휴대폰은
낮시간에 충전하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고,
조명은 LED로 교체하기



세탁기,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